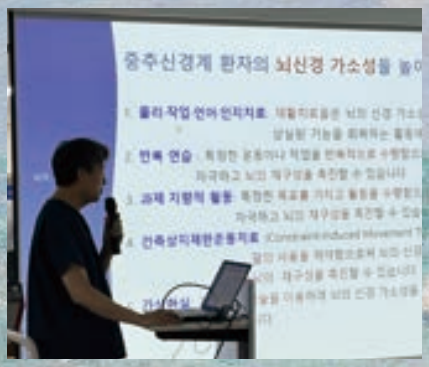
2026.06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50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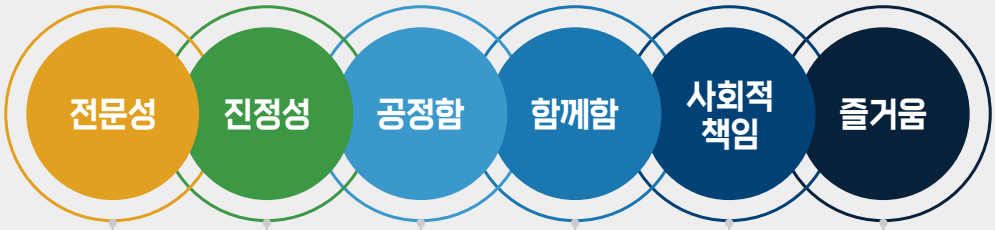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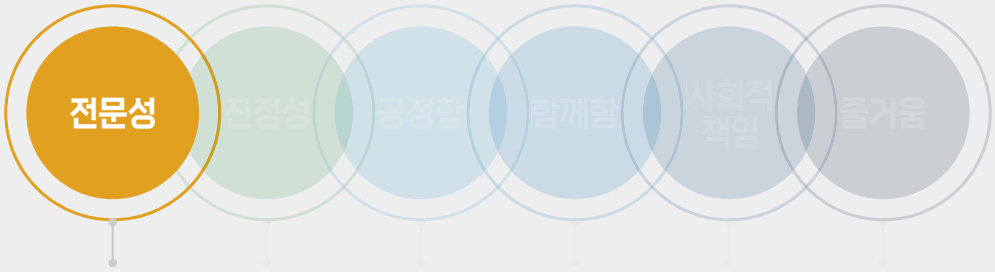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 함께 여는 길

개원 15주년과 1,500례 달성을 함께 돌아본 갑상선센터 심포지엄 (06.24)

지난 6월 24일, 병원 4층 치료실에서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 함께 여는 길'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개원 15주년,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으로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 1,500례 달성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축사와 기념영상, 그리고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단순히 숫자와 성과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환자 곁에서 쌓아온 진료 경험과 구성원들의 노력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신수영 갑상선유방센터장님이 단일 기관 1,500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백정환 교수님, 아주대학교병원 하은주 교수님, 서울대학교병원 김지훈 교수님께서 갑상선암 비수술적 치료의 흐름, 국내외 진료 지침 변화, 향후 표준화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1,500례라는 숫자 안에는 병원을 믿고 치료를 선택해 주신 환자분들의 신뢰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해 온 구성원들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진료실과 치료실, 병동과 원무, 행정과 지원부서까지 여러 부서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도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를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제13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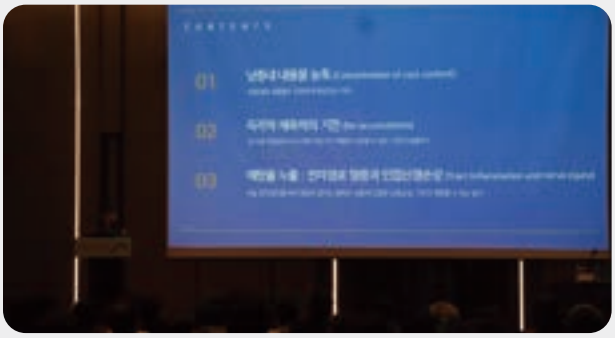
백선미 병원장님 강의 (06.25)

백선미 병원장님이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에 참가해 산하학회 갑상선 세션에서 'Ethanol Ablation for Non-Thyroidal Neck Masses'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Troubleshooting Challenging Situations in Thyroid Practice'를 주제로, 갑상선 및 경부 인터벤션 진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해결 전략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세션은 갑상선 세침흡인검사(FNA), 중심부바늘생검(CNB), 비갑상선 경부 종괴 에탄올 절제술(EA), 갑상선 고주파열치료(RFA) 등 실제 진료에서 중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세 번째 연자로 참여해 비갑상선 경부 종괴에 대한 에탄올 절제술의 적용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병변의 특성과 위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 판단 과정과 실제 임상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병원이 갑상선 및 경부 인터벤션 분야에서 꾸준히 쌓아온 진료 경험을 학술 현장에서 함께 나눈 자리였습니다.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어온 병원의 시간이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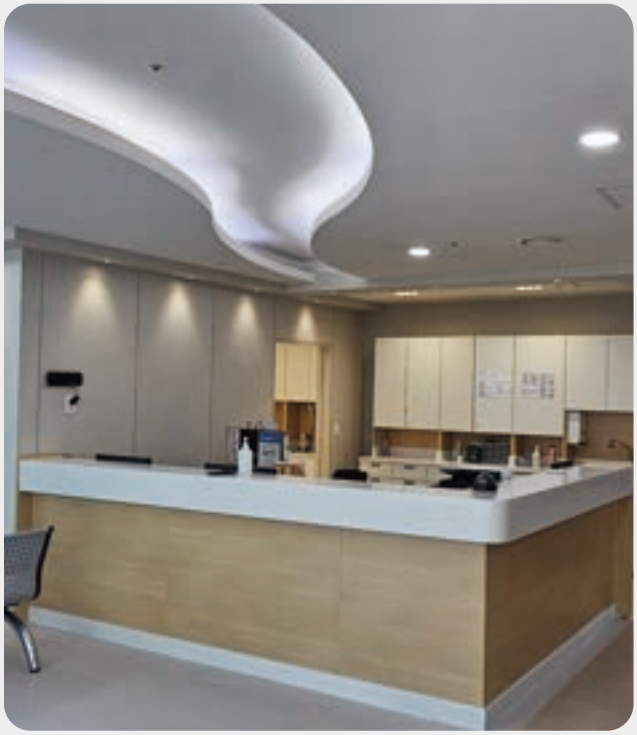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운영 (06.22)

6월 22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기존 5·6층 88병상에서 5·8층 12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은 물론,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8생활동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병동 이사와 신고 업무, 시설 정비, 환경 조성 등 여러 과정에서 많은 부서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선영 간호팀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6생활동과 8생활동의 이사 및 신고 관련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병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더 큰 안심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따뜻한 재활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기 신입직원수료식 (06.26)

입사 후 100일이 된 소감





입사 후 100일이 되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 병동에 배치되었을 때는 업무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작은 일 하나에도 긴장했고, 선배들에게 질문하는 것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잘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끝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참여자분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의 두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것을 숨기기보다 확 인하고 배우는 것이 참여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수할까 봐 긴장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날이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100일은 잘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안전한 간호사가 되기 위 해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5병동_천세훈



할수있는 실수는 빠짐없이 해가며 적응하는 기간이었지만 내것이 되는 시간이라 뿌듯했습니다.

내과내시경팀_김홍선



밥심이 곧 결정적인 순간! 든든하고 맛있는 밥심 덕분에 100일 동안 지치지않고 힘낼 수 있었습니다!

7병동_박우진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입사한 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병동에 배치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메모하고, 퇴근 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처음 나이트 근무를 시작했을 때 공부했던 흔적입니다.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업무를 익히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씩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7병동_편효진



입사 한달은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위해 늦게 까지 남아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 했었던것 같습니다 혼자업무를 맡게 되었을때 너무 힘들어서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외래고객이 너무 많아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적응한 단계이고 실수하면서 배우는거지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래방문 고객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방문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칭찬해주시면 큰힘 되기도 하고요 그덕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내과내시경팀_조정희



어느덧 3개월이 지났네요. 처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요즈음입니다.

함께 하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입니다.

6병동_최미화

처음 출근해서 이 사원증을 받고 가슴에 배지를 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우리 병원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깊은 소속감과 설렘을 느꼈거든요. 저에게는 우리 병원의 구성원이 된 가장 뜻깊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서툴고 모르는 것 가득한 신규였지만, 같이 으샤으샤 하며 큰 힘이 되어준 우리 달동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원증을 목에 걸었던 그날의 초심과 소속감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간호를 전하는 간호사 안미경이 되겠습니다.

6병동_안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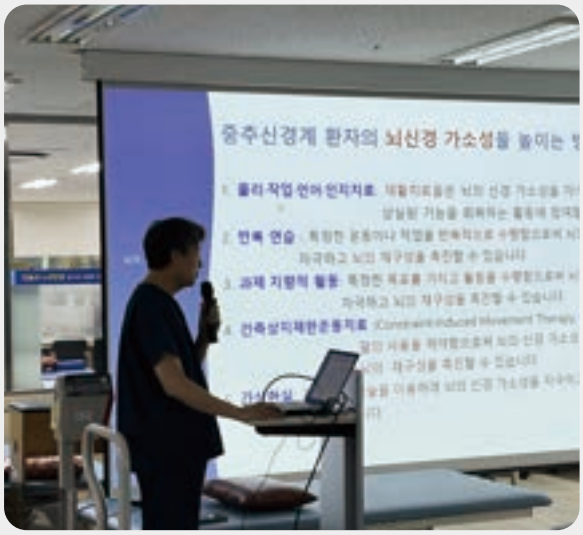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 재활생활 (06.10)

6월, '슬기로운 재활생활' 세 번째 교육은 재활1팀 강봉학 부팀장님께서 「운동치료와 치료효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중추신경계 환자의 중심 안정화 운동'에 대해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으며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골반경사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골반 돌리기 운동, 체간의 고리 만들기 운동 등을 치료사와 함께 직접 시연해주셨습니다. 특히 강봉학 부팀장님께서는 '코어근육 강화'가 모든 재활치료의 기본임을 강조하시며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전달하셨습니다. 참여자들은 운동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집중도를 보였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활치료의 적정 횟수, 참여자의 상태에 따른 운동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참여자와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재활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자에게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케어회의 (06.12)

우리 병원과 해운대구청은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퇴원 참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 임○○님은 근골격계 질환 참여자로 본원에서 약 2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사회사업팀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사례회의는 퇴원 전 본원 사회사업팀에서 해운대구청 재가의료관리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퇴원 이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적 평가,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였고 주1회 밑반찬 서비스, 주3회 퇴원환자 안심 돌봄서비스, 외래진료 시 택시비 지원, 119응급안전안심벨 신청을 통한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대비, 월1회 건강 상담 및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원 이후에는 사회사업팀과 간호팀이 협력하여 약 1년간 의료적·일상생활·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을 살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6.13)

6월, 싱그러운 초여름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7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6.05)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해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성실한 참여가 모여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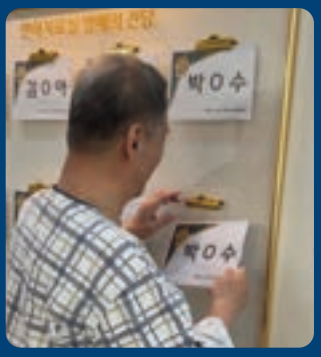


- 출석왕 신○숙 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출석하겠습니다."
- 출석왕 김○용 님
  "치료를 반복할 수록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립왕 박○수 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 자립왕 김○희 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로의 노력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이 시간이 참여자분들께 또 하나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낮병동 일상재활센터는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성장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36·37대 꿀꺽왕 시상식 (06.05 / 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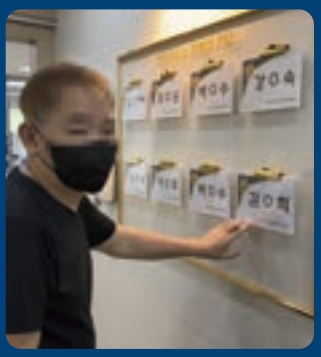




제36대 꿀꺽왕에 박○수님이 수상하였고, 6/5일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수상소감을 통해 "콧줄을 평생 못 뗄 줄 알았는데 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의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 6/17일에는 제37대 꿀꺽왕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김○희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김명희님은 치료 과정 동안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에도 곁에서 응원해 주고 도와준 의료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6.17)



퇴원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시공 중인 화장실의 변기 높이가 트랜스퍼 시 적절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최초 시공 당시 변기 높이가 다소 높아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날 치료팀에서 최종 높이를 확정한 후 기존보다 6cm 낮게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기 구조가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았으나 약 6mm 정도의 높이 차이만 확인되어 실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 주변 편의시설과 이동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경사와 턱이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는 보호자 동행이나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향후 차량 이용을 계획하고 있어 차량 트랜스퍼도 함께 연습하였습니다.
수행은 가능하였으나 자세가 아직 능숙하지 않아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재 거주 예정 주택은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이며, 7월 퇴원 예정입니다. 퇴원 후에는 전환홈에서 일정 기간 적응 과정을 거친 뒤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스포츠체험 (06.12)





낮에는 덥다고 느껴질 만큼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사격체험을 위해 영도사격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사격 연습을 하는 학생선수들이 많지 않아 총소리가 비교적 적었고, 덕분에 참여자분들께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안전교육과 자세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과녁 중앙 가까이에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코팀 선생님께서도 처음으로 사격체험에 참여하셨는데, 첫 발을 10점에 맞추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셔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수로 활동하셨던 분조차 긴장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여자분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체험에 몰입하셨고,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험에는 보호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참여자분들의 집중력과 가능성을 보며 “운동선수로 성장 시켜야겠다”는 기대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서도 참여자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시길 기대해봅니다.

휠체어스쿨 (06.08)

신OO 신규참여자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시간에도 참여자분들의 수준에 맞추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심화반은 트랜스퍼와 문 열고 닫기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초반은 전진, 회전, 밀기 등의 기본 휠체어 조작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지하 2층으로 이동하여 실제 환경에서 문을 열고 닫는 연습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분들께서 각자 익숙한 방법으로 문을 여셨는데, 문을 여는 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령과 자세를 알려드렸고, 이를 적용하자 문을 여는 시간이 단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도 방법에 따라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랜스퍼 훈련에서도 기본적인 수행은 가능하셨지만, 아직은 자세와 동작 요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 반복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으며 연습을 이어가다 보니 점차 안정감 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앞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더욱 빠르고 자연스럽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자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하시며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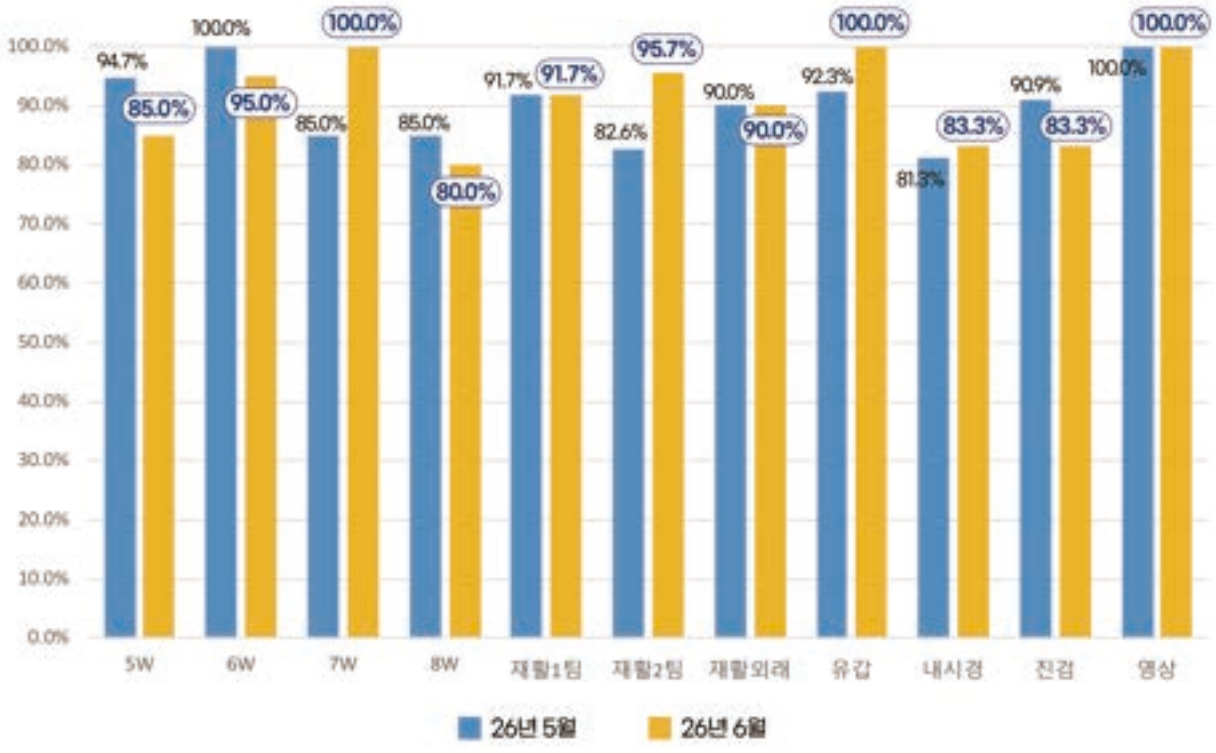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6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5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6	160	90.9%	+ 1.2%

6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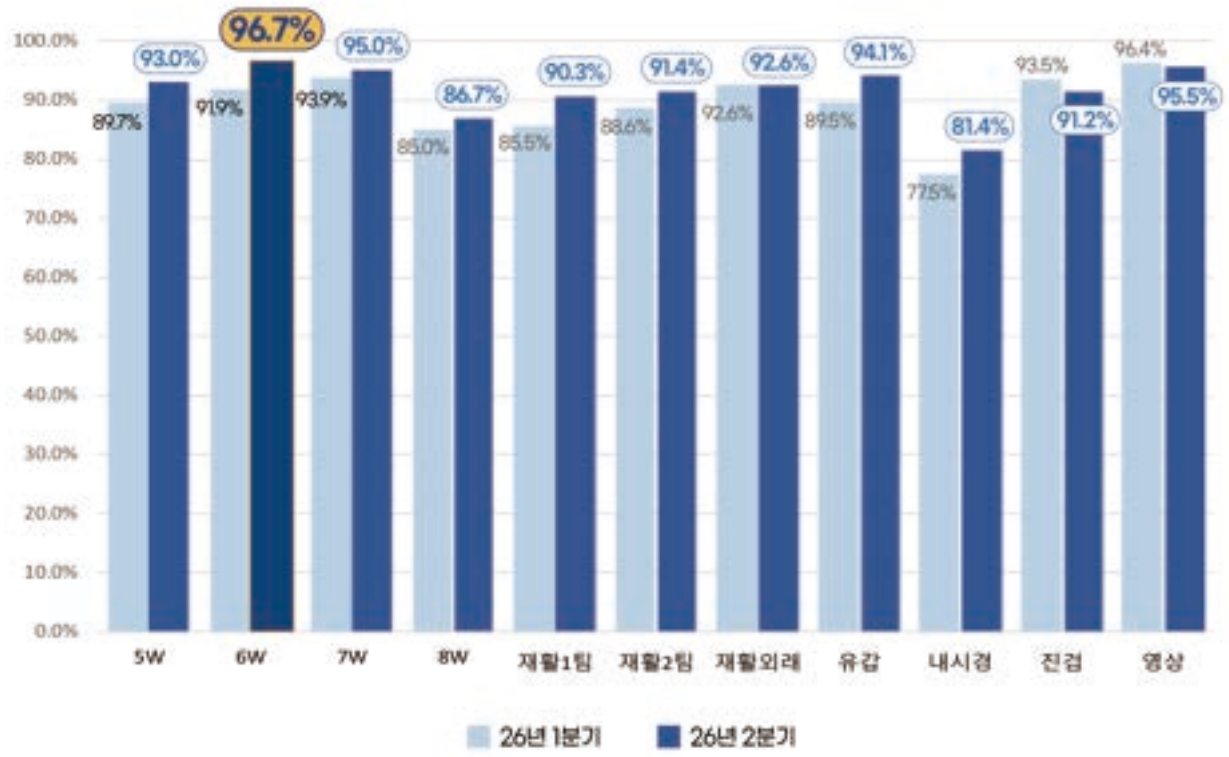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2분기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4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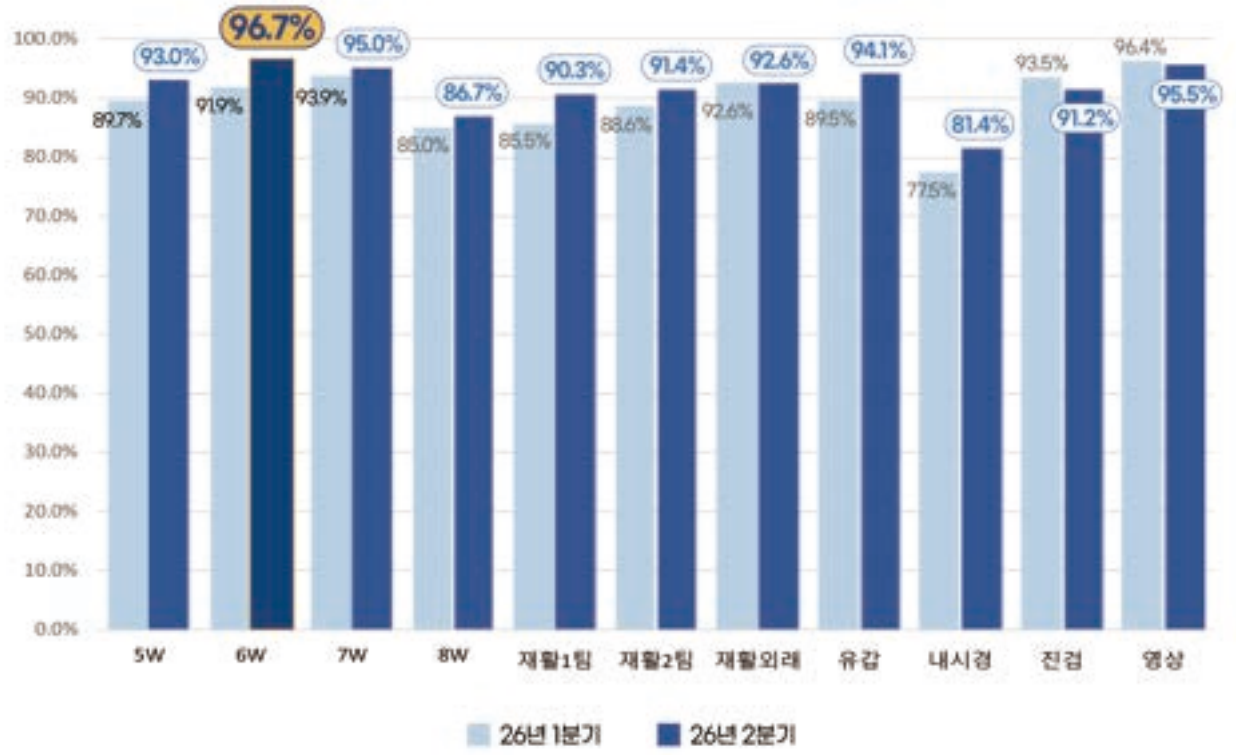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538	492	91.4%	+2.4%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6층 생활재활센터' 1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6.18)

2026년 2분기(4월~6월) 손위생 수행률은 총 538건의 관찰 중 492건이 수행되어 9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90%를 1.4%p 초과한 수치이며, 지난 분기 대비 2.4%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부서별로는 6W가 96.7%로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이며 우수한 손위생 실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영상의학팀 95.5%, 7W 95.0%, 유갑 94.1%, 5W 93.0%, 재활외래 92.6%, 재활2팀 91.4%, 진단검사의학팀 91.2%, 재활1팀 90.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부서가 목표치인 9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내시경은 81.4%로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으나, 지난 분기 77.5%에서 3.9%p 상승하여 개선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W는 86.7%로 목표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지난 분기 85.0%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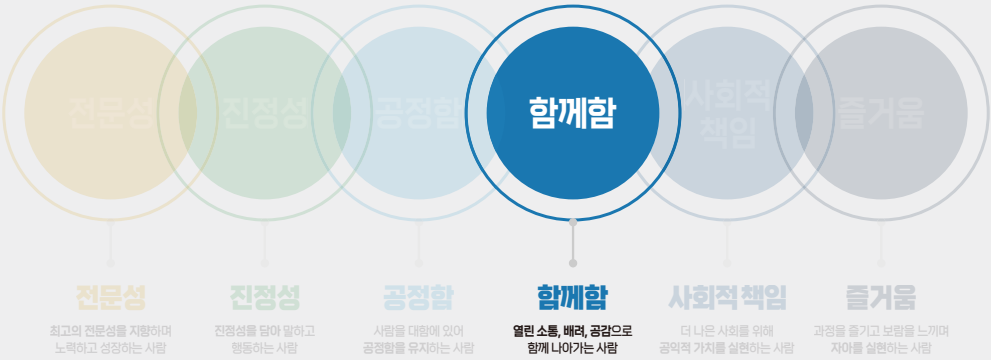
이번 결과는 전분기 대비 전체 수행률이 상승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목표 수준 이상의 손위생 실천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손위생은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인 만큼, 목표 미달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손위생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06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이 지 영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김 영 희 간호사



사회사업팀
권 나 언 사회복지사



재활간호팀(6W)
유 경 희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장 승 희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김 정 희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신 나 현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홍 미 숙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한 승 백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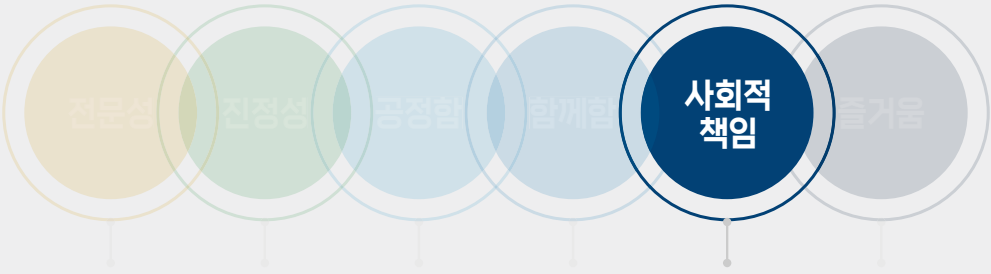
재활치료1팀
김 수 연 물리치료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6.17 / 06.26)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5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층 탈의장 환경개선 (05.16~06.15)

■ 그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

소문만 무성했던 1층 여자 탈의실의 대변신!

"1층 여자 탈의실이 그렇게 좋다던데?"
"안에 뭐가 있길래 다들 좋다고 하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데..."

그동안 1층 여자 탈의실은 일부 직원들만 이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에게는 어쩌면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탈의장 환경개선을 통해 그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용 인원 확대!
기존에는 143명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270명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1단 락커를 2단 락커로 변경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143명 → 270명 이용 가능
- 1단 락커 → 2단 락커
- 여성 직원 통합 이용
- 동일 규격 신규 락커 설치



Before



After

■ 그래서 내부는 어떨까요?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고 깔끔해졌습니다. 새로운 락커가 한 줄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공간 활용이 좋아져 이동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넓네?"
"새 가구 냄새 난다!"
"이제 진짜 새집 입주한 느낌인데?"

실제로 오픈 당일 직원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 새 집 입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탈의장을 기념하여 직원분들께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새 가구 특유의 냄새를 줄이고 개인 공간을 더욱 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옷장용 미니 방향제를 1인 1개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기분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직원을 위한 공간

이번 탈의장 환경개선은 단순히 오래된 락커를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궁금하기만 했던 1층 여자 탈의실.
이제는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탈의장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편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복무에티켓

“당신 덕분에 일할 맛 납니다”



9시 5분은 9시가 아닙니다

업무도, 회의도 정시에 바로 몰입할 수 있도록
딱 5분만 먼저 준비해 주세요.
참여자의 시간도, 동료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말없이 사라진 빈자리는 동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말없이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동료는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 걸까, 퇴사를 한 걸까...'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땐 행선지와
복귀 시간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개인적 웹서핑은 퇴근후 즐거움으로 남겨두세요



근무중에는 쇼핑몰 장바구니,
주식 차트 확인은 노노~
부서장님은 이런 경우
'정확한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헤드뱅잉은 콘서트장에서, 게임 레벨업은 휴식시간에!

밀려오는 잠은 죄가 없지만,
책상에서 헤드뱅잉은 곤란해요
쏟아지는 졸음은 스트레칭으로 깨우는 센스!



결정전에는 치열하게! 결정후에는 책임있게!



논의는 치열하고 뜨겁게 진행하되,
일단 방향이 정해졌다면 한마음으로 달려가요~

5월의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갑상선 김미경 선생님 진료실 간호사님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너무 한이 되네요

내과 남지현과장님 예약 담당 직원선생님 성명을 모르겠네요.
웃는 모습으로 너무 친절하여 환자로서 행복한 방문이었습니다.
또 채혈실 선생님 두 분도 너무 친절하여 감동했습니다.

유방센터 선생님 간호사님들 모두 친절하세요.
오늘 영상의학과 여선생님도 배려 감사했습니다!

직원분 성함은 모르겠지만
고주파 유방촬영실(젊고 이쁘신)의 직원분 친절하시고,
국가검진 유방촬영실 직원분도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피검사하시는 단발머리 안경쓰신 선생님 가장 친절하시네요.
환자가 많으실텐데 웃으면서 안내도 잘해주시구요~
다른 선생님들도 전반적으로 친절하셔요.

내과 첫 진료였는데 간호사쌤 넘 친절하셔서 감사했어요.류승훈선생님 담당 간호사쌤 ~~

심장내과 접수부와 혈액검사 혈관 잘 찾아 주신 분 칭찬하고 싶어요!

유방센터 안내데스크 분들 넘 친절했어요~

원장님 갑상선 앞에 계신 직원 분, 몇 개월만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면 항상 얼굴 알아보시고 왔냐고 웃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직원 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다는 말 해주시는 병원은 처음입니다 ㅎㅎ
백선미 원장님께 초음파 검사 직전 안내해주신 간호사 선생님~ 월급 좀 올려드리세요~^^

유방초음파 김현수 선생님 담당 접수 보시는 분 성함을 안보고 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시경을 위해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놓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바늘이 들어가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내시경실에서 접수를 받고 사전 준비를 해주시는 간호사 분이었는데..아쉽게도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건강검진 접수처에 계시는 분은 서류를 작성하는데에 있어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을 뿐아니라 이전 검진 기록과 비교해가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상담해주셨습니다. 신체검사, 체혈, x ray, 내시경에서 담당하시는 모든 진료 관계자 분들이 형식적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저의 불편함을 체크해주시고 경청하시고 해결하시려는 노력이 인상깊었습니다. 많은 환자중 한 사람이 아닌 개인으로 존중해주시는 태도가 아주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다음에도 다시 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10년 정도 여기서 갑상선 진료 받고있는데 채혈실 간호사선생님 오래 계시고 갈 때마다 친근하게 맞이해주셔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오래 전 친정엄마께서 뇌출혈로 재활로 입원도 하신 적 있는데 병동 의료진분도 재활실 치료사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환자에게 잘해주셔서 시아버님까지 입원 치료도 권해서 한 적이 있어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머무는동안 좋은 기억으로 안겨주시니 너무 좋았네요~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5층 생활재활센터 구주현 간호사

참다가 발톱이 너무 아파서 조무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내성발톱이 되기 직전이라 하시며 본인 담당이 아니었지만 아프다하니 측은지심으로 손질해주시며 며칠 계속 물어봐주시고 확인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활치료1/2팀 치료사 선생님들

노현욱, 송영훈, 최유현, 차정인, 박용준, 오영민, 김희진, 윤소영, 표나연, 손수현, 윤설아, 박아림, 김태영, 공유진 선생님 칭찬합니다.

재활치료1팀 윤찬우 파트장

환자를 너무 성심성의껏 땀 흘리며 가르쳐 주십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원장

백선미 원장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희망주셔서 큰 힘을 얻습니다. 갑상선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많은 걸 보고 믿음이 더 생겼어요. 병원 위치도 울산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하루일정으로 진료해서 좋았고요. 백선미 원장님팀, 간호사선생님들 뿐 아니라 엘베 앞에서 친절하게 인사해주시는 젊은 미남 직원분 감사합니다.

백선미병원장님 덕분에 티셔츠 대신 편하게 남방, 정장셔츠를 입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직원 세 분의 친절이(얼굴만 아는데 이름을 몰라서 아쉽네요) 참 좋았습니다.

아쉽거나 바라는 점은 없구요. 여러 병원 가봤는데 백선미선생님 너무 설명도 정확하게 잘해주시고 직원분들도 완전 친절하세요 진짜.. 지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선미 의사션생님 아주 친절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십니다.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돋보여 칭찬합니다.

선미 원장님 —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아요.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주심.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부장

고인영 박사님의 치료 덕분입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내과 정민정 과장님외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함.

정민정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면서 자세한 설명과 자신의 병에 대해 앞으로의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님들과 그외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해서 병원에 가면 불안한 마음보다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계속 이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민정 선생님의 세심한 환자 관리.

정민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류승훈 부장

최근에 진료를 받은 내과에 새로 오신 류승훈과장님 자상하고 친절했으며 특히 제가 궁금하여 문의하면 기꺼이 설명해주셔서 감사했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전문성에도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과장

김현수선생님께 작년에 미세석회화로 조직검사를 받고 오늘 재진료를 받았는데 친절하시고, 꼼꼼히 봐주셔서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추천추천♡

김현수 선생님의 꼼꼼한 진료 감사합니다.
또 김현수 선생님 앞 간호사 선생님 두 분도 정말 친절하십니다. 감사해요~!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갑상선 내분비 박미경교수님 동아대병원 근무하실 때부터 다녔던 환자인데 항상 교수님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랑 검사 잘해주셨구요 타지방에서 온다고 검사랑 진료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예약시간 모아 주시는 배려에 넘 좋았어요.

내분비과 박미경선생님 담당 간호사님 너무 친절하셨고, 건강검진센터 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오랜만에 방문했지만 기분좋게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내분비내과 간호사님 정말 친절하시고, 박미경 선생님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최지윤 팀장

최지윤 선생님 늘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과장

신수영과장님 진료 때마다 설명 잘해주시고 수술 때도 안심할 수 있게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수영 선생님을 비롯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며 전 믿음으로 함께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 꼼꼼하게 봐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모든 직원분들, 간호사 그리고 접수받는 분과 제가 진료받는 신수영 선생님의 아름다운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에 이런 좋은 병원이 있어 행복합니다.
발전과 번창하여도 이렇게 환자를 섬기는 전직원들로 거듭나시기를..

유방센터 신과장님 — 갈 때마다 따뜻함으로 진료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환자들 또한 섬기는 고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영 선생님~ 차분히 진료 잘 보아주셔서 감사해요~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2월말 남편이 심장 통증이 있다고 해서 심장내과 진료 중 급성신근경색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어째해야될지 잠깐 멍한 사이 박민아선생님과 담당 간호사분, 그 주위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1차 진료기관도 섭외해주시고 병원119도 불러주시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사히 백병원서 심장스텐트시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남지현 과장

내과 진료 남지현 선생님은 환자를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환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며
설명을 잘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과 남지현 선생님께서 환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질병 상태, 진행 상황, 치료 방법, 조심해야 할 생활습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며 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주시는 남지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과 안내실 직원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칭찬해주시고, 성과금/보너스도 많이 주세요~~

k-직장인의 성장 일기

뱃살은 그대로인데 생각은 자랐습니다.

눈만 떴을 뿐인데 이미 피곤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면 하루 에너지의 절반은 증발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거울 속, 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가득한 퀭한 얼굴을 향해 주문을 외칩니다.
"나는 적은 에너지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능력자다!"

효율은 모르겠고 일단 출근은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지극히 평범한 25년 차
K-직장인입니다.

남편 없어요~
자식 없어요~
돈 없어요~
차 없어요~
교양 부족해요~
키 부족해요~
대신 뱃살은 넉넉해요~
싸가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게 많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뭘 채워야 중간은 갈 수 있을까?"

돈을 채우기엔 통장이 협조를 안 하고,
키를 채우기엔 성장판이 이미 퇴사했고,
남편을 채우기엔 모집 공고를 올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없는 걸 만드는 건 어렵지만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족한 교양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출근길은 저의 공식적인 '교양 충전 시간' 이 되었습니다.

차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약 1시간의 출근길.
누군가는 잠을 자고, 누군가는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게임을 합니다.
저는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습니다.
빈자리를 사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세로 책을 펼치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에도, 귀에 떼려 박히는 딕션의 대화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거의 독서계의 국가대표 정신력입니다.

물론 읽은 내용을 100%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첫 장에서는
"와, 정말 좋은 내용이다!" 감탄했는데,
마지막 장에 도착하면
"어...? 내가 방금 뭘 읽었지?"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단을 세 번 읽고도 새 문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독서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한 권의 책이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도, 한 문장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저에게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환자의 회복과 건강, 삶의 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영양사는 밥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으로 정서와 건강을 돕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업무 외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만날수록 환자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결국 독서는 교양을 쌓는 일이자, 더 좋은 영양사가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부입니다.

책은 그런 성장의 가장 착한 투자입니다.
주식처럼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코인처럼 밤새 시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장씩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읽은 만큼 조금씩 달라집니다.
헬스장처럼 근육통도 없고,

열린결말 네 번째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04

학원처럼 숙제도 없고,
상사처럼 평가도 없습니다.
대신 생각의 근육이 조금씩 붙습니다.
물론 제 뱃살은 그대로인데, 생각의 근육은 꽤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저는 또 한 장의 책장을 넘깁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한 페이지 더 읽었고, 한 가지 생각을 더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간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독서였는데, 어쩌면 중요한 건 중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펼칠 것입니다.
뱃살은 쉽게 안 빠지겠지만, 교양은 조금씩 쌓일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뱃살도 같이 성장 중이긴 하지만요."



영양팀
김정희 팀장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한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1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잔치국수



“국수 맛 집, 엄마 국수보다 맛있어요!”
“병원 국수 먹다가 다른 집 국수는 못 먹어요.”
“국수 비법 좀 알려 주세요!”

국수가 나오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영양팀은 가끔 고민합니다.
'이 정도면 국수집 간판도 하나 달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입소문이 차곡차곡 쌓인 영양팀표 잔치국수가
이번 달 참여자 요청 메뉴로 선정되었습니다!





탱글탱글한 면발 위에
향긋한 부추, 쫄깃한 어묵, 아삭한 단무지, 매콤한 김치, 달큰한 당근,
그리고 고소함을 책임질 김가루까지!
고명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듬뿍 올렸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고명들의 단합력은 웬만한 프로젝트 팀보다 좋습니다.

오늘도 참여자분들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영양팀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비법을 알려 달라고 하셔도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라,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셔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한 그릇 한 그릇에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 시 또 “비법 좀 알려 주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영양팀은 웃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과 손맛, 그리고 조금의 땀방울입니다.”

오늘 점심은 후루룩~
잔치국수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맛보시고,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6.16)

행복의 비밀

> 지금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날은 웃지 않는 날입니다.
> _법정스님

음식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쉽고 빠르게 웃게 만드는 행복의 비밀이라고 굳게 믿는 영양팀!

오늘을 더욱 쓸모 있는 날로, 더없이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주방의 뜨거운 열기를 휘저어 가며 똥줄 빠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한입 먹고 "맛있다!"
두입 먹고 "오늘 메뉴 최고!"
세입 째에는 조용히 밥 한 숟갈 더 뜨게 되는 마법 같은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영양팀은 오늘도 여러분의 맛있는 웃음 한 번을 위해
땀 한 바가지, 정성 두 바가지, 사랑 세 바가지를 듬뿍 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칼로리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맛있게 드시고 크게 웃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한 그릇 가득 담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Smile Day

밥상은 귀를 기울인다

한 끼의 식사에 담긴 영양팀의 마음

> 너무나 사소해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것들이
>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른다.
> _ 김이율,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지식너머

며칠 전 영양팀장님께 사내메신저를 보냈다.

"김밥이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옆구리 안 튀어나오려고
제 몸 꾹꾹 붙여가며 햄이며 계란이며 우엉이며
다 껴안아줬는데, 왜 김밥 이야기는 한 줄도 없냐고요."

이번 달 '나행밥상'의 주인공은 잔치국수였다. 사진 속에는 잔치국수 옆에 김밥도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원고에는 잔치국수 이야기만 있었다. 국수는 탱글탱글한 면발과 고명까지 넉넉히 소개되었는데, 김밥은 그저 사진 한쪽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문득 김밥 입장이 궁금해졌다. 속으로는 꽤 억울했을지도 모른다. 옆구리 터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원고에 김밥 이야기를 한 줄 덧붙이고, 영양팀장님께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업무 대화였지만, 잠깐 웃음이 났다. 병원 안의 대화가 늘 무겁기만 하다면 얼마나 숨이 막힐까. 가끔은 김밥도 서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잔치국수 옆에 놓인 작은 메뉴 하나에도 마음을 붙여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양팀의 대화에는 그런 말맛이 있다.

영양팀장님은 평소에도 전체 톡방에 공지를 올릴 때 그냥 딱딱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잔반 없는 날, 이벤트 데이, 특식 안내 같은 내용도 어쩐지 한 번 더 읽게 만든다. 필요한 말은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문장 끝에 웃음이 살짝 걸려 있다. 공지는 공지인데, 사람 냄새가 난다. "오늘은 이런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점심은 조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이 함께 온다.

병원에서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입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 하루는 생각보다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아침 식사가 오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점심 식사가 오면 오전이 지나갔음을 알고, 저녁 식사가 오면 병원의 하루가 조용히 접히고 있음을 느낀다. 치료 일정표와 투약 시간 사이에서 식사는 가장 일상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래서 병원 밥은 더 중요하다. 병원에서 먹는 한 끼는 몸에 들어가는 영양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도착하는 기분이기도 하다.

맛있는 밥은 사람을 잠깐 집으로 데려간다.

잔치국수가 나오는 날이면 반응이 먼저 온다. "엄마 국수보다 맛있다"는 말도 나오고, "비법 좀 알려달라"는 말도 나온다. 병원 안에서 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까지 칭찬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잔치국수는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익숙한 음식에 가깝다. 집에서 먹어봤고, 잔칫날 먹어봤고,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먹어봤고, 어린 시절 주말 점심에 먹어봤을 법한 음식이다. 익숙한 음식은 기준이 높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기만의 국수 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병원 잔치국수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간이 맞았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그 안에 기억이 건드려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번 달 나행밥상이 잔치국수였던 것도 참여자 요청 메뉴였기 때문이다. 영양팀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 요청을 메뉴로 옮겼고, 메뉴를 한 끼의 식사로 만들었다.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하고, 김가루를 올리고, 부추와 어묵과 당근과 김치를 맞춰 담았다. 그리고 옆에는 김밥도 놓였다. 국수의 친구처럼, 그러나 나름의 자부심을 가진 메뉴로.

한 끼의 식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여는 공간 중 하나는 주방이다. 많은 직원이 아직 출근길에 있을 때, 영양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다. 불이 켜지고, 식재료가 확인되고, 조리도구가 움직이고, 오늘의 식수가 점검된다. 국과 반찬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준비되어야 하고, 치료 일정과 병동 흐름을 고려해 식사는 제때 도착해야 한다. 늦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대충이어도 안 된다. 맛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밥은 따뜻해야 하고, 과정은 차가울 만큼 정확해야 한다.

병원 식사는 집밥과 다르다. 집에서는 오늘 조금 늦게 먹어도 되고, 반찬 하나가 빠져도 큰일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다르다. 식사 하나에도 수많은 확인이 붙는다. 제한식이 있는지,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당뇨식이나 저염식이 필요한지, 알레르기나 개인 상태는 어떤지 살펴야 한다. 같은 점심시간이어도 모두에게 같은 밥상이 갈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맞는 식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의 밥상은 맛있는 동시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영양팀의 일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맛있게 만들되,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성을 담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처럼 보여도, 매 끼니는 새로 시작된다. 아침을 끝내면 점심이 오고, 점심을 마치면 저녁이 기다린다. 하루 세 번이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손과 발은 간단하지 않다. 병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면, 영양팀은 병원의 하루를 가장 일찍 데우고 가장 늦게 정리하는 팀에 가깝다.

그런데도 영양팀의 글과 공지에는 피곤함보다 유머가 먼저 온다. 그게 참 좋다. 바쁘지 않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웃을 틈을 만들어내는 것. 일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일을 너무 무겁게만 두지 않으려는 태도. 나는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조리 실력, 영양 관리 능력, 식단 구성 능력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의 실력도 영양팀의 중요한 힘이다.

나행밥상은 그런 힘이 잘 보이는 콘텐츠다. 한 달에 한 번, 참여자들이 좋아했던 메뉴나 요청 메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벌써 서른한 번째 이야기까지 왔다. 한 번의 콘텐츠로 보면 작은 글이지만, 서른한 번이 쌓이면 그것은 기록이 된다. 병원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했는지, 영양팀이 어떤 마음으로 밥상을 준비했는지 남는다.

식단표는 메뉴를 알려주지만, 나행밥상은 마음을 알려준다.

잔치국수 한 그릇을 소개하면서 면발 이야기를 하고, 고명 이야기를 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전한다. 때로는 음식에 얽힌 추억을 꺼내고, 때로는 계절감을 담고, 때로는 "오늘 점심은 후루룩" 같은 가벼운 문장으로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 병원 안에서 밥을 기다린다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기다릴 것이 있다는 건 하루에 작은 기대가 생긴다는 뜻이니까.

병원 생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진료 일정, 치료 시간, 검사 순서, 병실 생활의 규칙들이 하루를 단단히 잡고 있다. 그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먹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은 작지만 반가운 틈이 된다. 참여자 요청 메뉴가 실제 식단으로 올라오는 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병원이 듣고 있다는 신호다.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곳과, 작은 요청이 한 끼의 밥상으로 돌아오는 곳은 다르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꼭 상담실에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주방에도 귀가 있다. 잔반량을 살피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만족도 조사를 보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이 메뉴가 좋았다"는 말을 기억해두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좋은 식사는 먼저 귀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반응을 놓치지 않았는지, 어떤 불편을 다음 식단에 반영했는지. 그 과정이 밥상을 조금씩 바꾼다.

처음에 적은 문장을 다시 생각한다. 너무나 사소해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말. 병원 밥상 위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식판, 식지 않도록 맞춰진 국그릇, 환자 상태에 맞게 준비된 식사, 공지에 붙은 다정한 한 문장, 그리고 사진 한쪽에 조용히 놓인 김밥 한 줄.

지나치려면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과 시간과 마음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조금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오늘의 한 끼가 치료의 긴 하루를 건너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관점이 바뀌면 밥상도 바뀐다.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병원에서 너무 당연해 보인다. 입원하면 식사가 나오고, 시간이 되면 배식이 되고, 식판은 다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회수된다. 그런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만 해내면, 그 안의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영양팀은 그 당연한 일을 매일 다시 본다. 오늘의 밥이 누군가에게는 입맛을 되찾는 시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료를 버티는 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랜 입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은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 끼는 작지 않다.

국수 한 그릇에도, 김밥 한 줄에도, 새벽부터 움직인 손들이 있다. 메뉴를 고민한 시간, 식재료를 다듬은 손끝, 불 앞에서 흘린 땀, 배식 시간을 맞추는 긴장, 식사 후 반응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 사진 속 김밥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한 줄을 더 적는 일도, 어쩌면 그 마음의 연장선에 있다. 밥상 위에 오른 것은 다 나름의 역할이 있으니까. 잔치국수가 오늘의 주인공이었다면, 김밥은 조용히 그 옆을 받쳐준 든든한 조연이었다. 병원도 그렇다. 눈에 띄는 일과 조용히 받쳐주는 일이 함께 있어야 하루가 굴러간다.

영양팀의 하루도 아마 그렇게 굴러갈 것이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빠지면 바로 티가 나는 일들. 칭찬은 가끔 오지만, 불편은 곧장 도착하는 일들. 그래도 매 끼니가 다시 시작되면, 영양팀은 또 준비한다. 오늘도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더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식사가 치료의 긴 하루를 건너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밥상은 말이 없다. 하지만 잘 차려진 밥상은 이상하게 많은 말을 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 말들은 식판 위에 조용히 놓인다. 국그릇의 온기와 반찬의 색, 밥의 윤기와 고명의 향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보다 잘 안다. 정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전해진다.

이번 달에도 나행밥상은 한 끼의 이야기를 남겼다. 잔치국수는 칭찬을 받았고, 김밥은 뒤늦게나마 자기 몫의 문장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병원의 문장은 꼭 안내문이나 블로그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식판 위에도 문장이 있다.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준비한 메뉴 하나, 웃음을 섞어 전하는 공지 하나, 제일 먼저 시작해 제일 늦게 마무리하는 손들의 수고 하나가 병원의 문장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제공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식사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가이다.

영양팀은 오늘도 그 질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불을 켜고, 재료를 살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판을 채운다. 그리고 병원의 하루는 그 밥상 위에서 조금 더 따뜻해진다.

한 끼는 지나가지만, 잘 들은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쌓여 나행밥상이 되고,
나행밥상은 오늘도 병원 안에서 조용히 말한다.

'우리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의 문장] 8화

이번 브런치 49번째 이야기는
현재 개인적으로 출간을 목표로 하는
'글로써 병원을 그리다, [병원의 문장]'
제8화에 올린 글입니다.

최종 30화까지 목표로
지난 15년간 병원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중
특별했던 이야기를 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연재 중이며
벌써 11화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마 되든 안되는 간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 30화가 채워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Cliff Walk at Pourville (1882)
Claude Monet (French, 1840–1926)

푸르빌의 절벽 산책로 (1882)
클로드 모네 (프랑스, 1840–1926)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50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6월 30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